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루가 제 5 주일

성 클레오파 70인 사도
(제3조 • 조과 부활 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제3조 부활 찬양송 82

사도 찬양송 84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85

사도경 : 고린토 후 11,31~12,9

봉독서 279

복음경 : 루가 16,19~31 12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억압된 이들의 해방과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서와 성찬예배

성찬예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성서의 모든 내용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도경과 복음경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찾아서 봉독합니다. 그리고 응송(안티폰)의 구절은 시편에서, 뵤로끼메논과 영성체성혈송은 구약성서의 구절에서 선택한 내용으로 부릅니다. 집전 사제가 올리는 기원과 기도는 성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찬예배가 거행되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선물인 성체성혈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고 본질이 같으신 삼위일체와 연합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찬예배에 참례하는 동안 신성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서의 말씀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교육의 효과도 있습니다.

-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구약성서의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600개가 넘는 계명(율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계명들의 특징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명들을 거르고 거르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핵심 계명이 남는데,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마태오 22,37~40)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도 결국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한1서 4,20)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하느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입니다. 이해타산이 결

부된 사랑, 조건이 물린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이나, 처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바깥 세상보다 더 무섭다고도 합니다. 살벌한 사회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지만 형제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증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사랑했습니다!”라는 말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는 늦추지 마십시오.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유



진리 안에는 오직 하나의 자유, 곧 우리를 죄와 악과 악마에게서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유만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킵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유는 환영(幻影)이고 거짓이며 말하자면 사실상 노예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 성 저스틴 포포비치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죄와 욕망과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것에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외적인 자유를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으로 드러내며, 가능한 한 법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외적인 자유를 내적인 노예 상태라는 짐을 자신에게 무겁게 지우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간의 적극적 능력이며,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단죄함으로써 죄에 찢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 성 필라렛 모스크바의 대주교

오직 깊고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신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을 비천하게 만들거나 초라한 종으로 바꾸지 않는 유일한 의지입니다. 아니 반대로 그런 의지는 인간을 드높이 들어 올립니다.

- 성 알렉산더 사제순교자(러시아, 1937)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자유 안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지상의 질서 안에는 평등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 영혼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왕이나 총대주교, 또는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는 있으며,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 성 실루아노스 아토스산 수도자

주간 예배 안내

* 11월 1일(화)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와
어머니 성 테오도티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영화 관람 안내

제목 : 하느님의 사람
일시 : 오늘 (30일)
오후 4시 45분
장소 : 대한극장 2관
(충무로역 하차)

* 관람료는 무료이며, 서울 성당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식

■ 온라인 성서공부 재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이 진행하는 온라인 성서 공부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의 골로사이 서신 연구를 계속합니다. 대교구 유튜브 채널에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되니,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울산 성당 방문

지난 주말(22-23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보제가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토요일 대만과에 이어 주일에는 성찬예배 후, 모든 신자가 근교로 소풍을 다녀왔으며, 성당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서울 성당 부인회 소풍

지난 24일(월), 서울 성당 부인회 '구복회'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함께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추도식을 드린 뒤, 함께 영적 대화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양구 성당 울타리 공사 완료

양구 성당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더욱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성당과 부지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베짜타 못가의 병자 치유 -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표지 사진 설명



그들 중에는 삼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 갑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가거라"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걸어 들고 걸어 갔다.(요한 5,5~8)

베짜타 못은 키드론 계곡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모인 곳으로 종교적이고 의학적 치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요한복음(5,2)에 의하면 다섯 개의 회랑(행각)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삼십 팔 년된 중풍 병자를 이곳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 연못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깊이가 20m 정도 되었고, 120x60m의 크기였다. 로마 이교 신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5세기 들어 성모님께 봉헌된 비잔틴 성당이 지어졌다. 성모님의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가 근처에 살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었다. 성당은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1871년의 발굴 작업을 통해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성당의 골격을 볼 수 있는데 깊은 연못 위에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웅장한 돌기둥들을 볼 수 있다.